

플라스틱 오염방지 조약 타결 실패

생산량 상한선 마련 등 법적 구속력 마련 못해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 협약 성안을 위한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났다. 사진=AFP연합뉴스

이번 회담에서 유럽연합(EU)과 소도서국들은 석유·석탄·가스를 원료로 하는 신규 플라스틱 생산량 상한 설정을 추진했지만,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국가들과 미국이 반대했다. 국무부 대표 존 톰슨은

회담장을 떠나며 논평을 거부했다.

세계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플라스틱 오염 방지 조약을 논의하던 유엔 협상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 최근 10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어진 회담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각국 대표단은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교착 상태를 타개할 돌파구가 기대됐으나, 합의문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1,000명 이상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지난해 말 한국에서 열린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회의도 합의 없이 끝난 바 있다.

프랑스의 아녜스 파니에르-루나세 생태부 장관은 폐회 연설에서 "많은 국가들의 진지한 노력과 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전혀 없었다"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대표 한델 로드리게스는 "일부 산유국이 합의를 원치 않아 협상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각국은 플라스틱 생산량 상한, 플라스틱 제품·유해 화학물질 관리, 개발도상국 지원 마련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U 대표 협상가인 덴마크 환경부 장관 마그누스 호니케는 "일부 국가가 합의를 방해하는 것은 비극적이고 깊이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지구 최대 오염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엔환경계획(UNEP) 잉거 안테르센 사무총장도 "원하던 결과를 얻진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합의를 원한다"며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단체 GAIA의 아나 로차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국장은 "형편없는 조약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며 생산 제한이 빠진 '약한 합의안'이 부결된 것을 환영했다.

덴마크 편지 배달 내년부터 중단

디지털화로 배달량 급감, 소포-택배에 집중

덴마크에서 400년에 걸친 국가 우편 서비스의 편지 배달이 올해 말 종료된다. 디지털화와 비용 상승으로 편지 사용량이 급감하면서, 국영 우편회사 포스트노르드는 결국 손실이 큰 편지 사업을 접고 소포·택배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덴마크인들이 받는 편지는 평균 월 1통에 불과하다. 김 페데르센 포스트노르드 덴마크 대표는 "편지 사용은 수년째 줄어왔지만, 온라인 쇼핑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소포 물량 증가가 회사의 주력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약 14억 통이던 연간 편지 물량은 지난해 1억1,000만 통으로 90% 이상 줄었다. 15년 전 전국에 여러 개 있었던 대형 편지 분류 센터도 이제는 코펜하겐 외곽에 단 한 곳만 남았다.

이 같은 감소세는 유럽 전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에서 편지 물량은 정점 대비 30% 이상 줄었고, 2008년 이후 대부분 50~70% 하락했다. 미국도 같은 기간 46% 감소했다.

덴마크의 높은 우편 요금도 편지 감소에 한몫했다. 2024년 우편 시장 개방과 부가가치세(25%) 적용으로 우표 값은 29크로네(약 4.55달러)까지 올랐다. 페데르센 대표는 "이로 인해 물량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포스트노르드는 편지 부문에서 2,200명을 감원하고, 소포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700명을 새로 고용한다. 덴마크 전역의 빨간 우편함 1,500개도 철거된다.



▲ 덴마크 코펜하겐 도로변에 훼손되어 있는 우편함. 사진=shutterstock

그러나 편지 배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간 업체 DAO가 2026년부터 전국 배달 서비스를 이어받는다. DAO는 신문·잡지 배달에서 출발해 이미 전국 물류망을 갖춘 업체로, 지난해 2,100만 통을 처리했으며 향후 3,000만~4,000만 통을 추가로 맡을 예정이다.

노인단체 데인에이저는 "농촌과 소도시에 사는 노년층이 우편함 부족으로 편지 발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동조합 역시 농촌 서비스 악화를 경고했다. 하지만 DAO는 "이미 전국 모든 지역을 커버하고 있으며, 기존 소포·신문 배달망에 편지를 통합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덴마크는 OECD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 한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디지털 사회'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편지에서 특별한 감성을 느낀다. 해외에 있는 딸과 편지를 주고받는 코펜하겐 주민 에테 에이링 윌리엄스는 "요즘 젊은 세대도 옛날식 감성을 원한다. 단순한 이메일이나 문자 대신 손으로 쓴 편지가 주는 감촉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A'DENTISTRY

20년 경력의 치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소문난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입소문으로 왔다가
**선택!
좋아요!
추천!**
까지 하고 가는
당신의 미소
찾을 수 있는 기회

- ✓ 임플란트, 치주질환
- ✓ 신경치료, 사랑니 발치
- ✓ 나에게 **꼭 맞는 틀니**가 있는 곳!
(틀니수리 1-2시간안에 가능)
- ✓ 각종 모든 치과 진료, 자체 랩보유



무료상담, 예약전화



T.714.449.1686

536 W. Commonwealth Ave. #A, Fullerton, CA 92832

